

# 장세일 영광군수, 지역현안 국비 확보 '전력투구'

### 국회 예결위원장 면담... 전략적 인프라 조성 강조 노인돌봄 클러스터·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 등

장세일 영광군수가 국회를 찾아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세일 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6년 영광군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장세일 군수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농어촌 지역일수록 주민 체감형 복지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적 인프라 조성 등에 예산 반영을 강조

했다.

장 군수가 건의한 사업은 약 2900억원 규모로, 주요 사업은 노인돌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455억원),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사업(총사업비 2435억원) 등이다.

노인돌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보건소 신축 부지 인근에 어르신들의 건강·복지·문화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부의 '돌봄통합지원'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장세일 영광군수(왼쪽)가 최근 국회에서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6년 영광군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사업은 진천 선수촌이 수용 한계에 도달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광군이 스포츠 선도시이자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고 훌륭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영광군이 요청한 사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군은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안 금액이나 미 반영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세일 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 영산강 정원·축제 시민설명회 50만 나주관광시대 기반 마련

나주시가 영산강 정원 조성과 10월 열리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밑그림을 선보였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산강 정원 조성·영산강축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 영산강 정원 조성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10월 8일부터 개최하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 소개, 영산강 저류생태습지의 기능과 역할, 영산강 정원 조성 사업 설명,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축제는 고려 태조 왕건의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영산강 생태, 역사, 문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영산강 주재관'이 조성된다.

또 23만1405㎡ 규모에 1억송이 코스모스가 만개해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직업체험공간 '키자니아', 싱어송, 매직쇼, 보드게임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한다. 나주=조현찬 기자 pose007@

### 재가암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구례, 신체·정서적 회복 지원

구례군은 9월 들어 재가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재가암환자 활력증진 프로그램'을 16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체력을 사전·사후로 측정해 운동 전후의 변화 정도를 비교·평가하며, 암환자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전남권역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와 남원체력인증센터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효과를 한층 높였으며, 전문 운동처방사의 지도 아래 체력 관리 교육, 근력 강화 운동(상·하 지 기능개선), 유산소 운동(걷기·건강체조) 등이 진행된다.

김순호 군수는 "체력과 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재가암환자에게 운동은 매우 뜻깊은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암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양시-린츠시, 문화예술 넘어 교육·경제 교류 확대

### 정인화 시장, 오스트리아 방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참석

광양시가 국제 자매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문화예술을 넘어 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

광양시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열린 '린츠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시상식 참석을 위해 현지를 방문한 정인화 시장이 디트마르 프라머 린츠 시장을 만나 환담하고, 양 도시 간 교류를 다각도로 넓혀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시장과 프라머 시장은 두 도시가 모두 철강산업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며, 기존 미디어아트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문화·교육·경제 전반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프라머 시장은 "광양시는 린츠시의 22개 자매도시 중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정인화 광양시장(왼쪽)이 디트마르 프라머 린츠 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표적 도시로 모범적인 사례다"며 "미디어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정 시장은 "양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양-린츠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정 시장은 또 린츠 포스트시티 컨퍼런

스에서 열린 '광양-린츠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해 오스트리아 대표 작가 팀 쉐넬과 한국 대표 작가 이진에게 '익스체인지 그랜트'를 각각 수여했다. 두 작가는 이달 열리는 '2025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과 10월 '광양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무대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 순천,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업 본격 시행

### 취약계층·청년 등 216명 선발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업을 9월 시작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과 청년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시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 사업에는 총 460명이 신청한 가운데 재산 및 가구소득, 참여 횟수 등 선발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공공근로 16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47명으로 총 216명이 최종 선발됐다.

참여자는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사업 등 총 124개 사업장에 투입돼 오는 11월 30일까지 근무

하게 된다.

시는 공공일자리아업 참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8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은 공공일자리아업 참여자와 사업 담당자 등 26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강사를 초청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응급조치·사고 대처법, 작업 전 안전점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



곡성군은 최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서 우수 상품 판촉전을 개최했다.

### '곡성의 맛' 수도권 소비자 입맛 공략 군, 하나로마트 양재점서 우수 상품 판촉전 개최

곡성군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7일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곡성군 우수 상품 판촉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달콤 향긋, 곡성애 빠지다'라는 이름으로 열려, 곡성물 입점업체와 지역 농가가 직접 참여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곡성의 대표 농특산물을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촉전에는 곡성농협, 석곡농협, 옥과농협을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12개 업체가 참가했다. 곡성물, 유기농 햇쌀, 토란대, 토란 막걸리, 수제 소시지, 조청류, 전통 된장·고추장 등 총 30개 품목을 선보였다.

신선 농산품과 가공식품을 아우르

는 다채로운 상품 구성은 곡성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

행사장은 청과, 양곡, 가공식품, 홍보관 등 4개 존으로 구성, 곡성의 맛과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으로 운영됐다. 특히 행사 기간에는 백세미, 브레인미, 수제 소시지 등 주요 품목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곡성물 운영 담당자는 "이번 하나로마트 판촉전은 곡성물과 지역 농가가 수도권 소비자와 직접 만나 교류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곡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물탱크도장공사

화장실공사

**인중 및 특이** 사회적기업인증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건설업등록증

**공공기관 실적**

- 목포시 수영장물자비담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비파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정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신행배수장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행정민청 거문도동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삼향교 복원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령로 1번길 51 ☎ 061-285-6100